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 29.(금) 14:00
(지 면) 2026. 5. 30.(토) 조간

본격적인 무더위 전, 폭염 취약계층 위한 쉼터 현장점검

- 인천 지역 옥외노동자 쉼터 점검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5월 29일(금) 인천광역시 지역의 옥외 노동자를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연수구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무더위쉼터를 살피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인근 18개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현장별 폭염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적극 도입하는 등 노동자 안전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①물, ②냉방장치, ③휴식, ④보냉장구, ⑤119 신고

이어, 남동구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도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폭염에 대비한 이동노동자 보호 대책을 꼼꼼히 살폈다. 이동노동자 쉼터에서는 배달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등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과 음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옥외노동자를 비롯한 폭염 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원대책 이행과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며, “각 사업장에서도 옥외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등 폭염안전 기본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진희 (044-205-6360)
		담당자	사무관	김용환 (044-205-6366)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



18개 모국어 번역본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예방조치

- ✓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 작업장소 근처에 휴게시설(섶터 및 그늘진 장소) 설치



체감온도 계산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

물



-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냉방장치



- ✓ 폭염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휴식



-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 ✓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 ✓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 ✓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